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주간 편집인 공이석 엽간 우식 김중근 베인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제1050호 〈주간〉 1994년 9월 5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동부변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졸업앨범 양캠 분리 제작

자체제작 둘러싸고 논란만 거듭

졸업앨범이 캠퍼스별로 분리 제작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사회진출준비위원회(이하 사준위)가 '길'스튜디오와 정식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미 독자적으로 1학기중에 사진촬영을 마쳤고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가 아직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독자적으로 '플러스 인'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데서 드러난다.

서울캠퍼스 졸준위(위원장 전형섭 미교·4), 사준위(위원장 성영수 행정·4)는 그동안 앨범제작방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끝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 앨범제작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졸업앨범은 학생처장의 결재 편의상 해마다 졸준위와 사준위에서 번갈아 제작해 왔고 올해는 사준위에서 그 준비를 총괄하게 되어 있었다.

졸준위는 지난 92년부터 우리학교 졸업앨범 제작을 총괄해 온 '길'스튜디오의 앨범제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미술교육과나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편집과 디자인을 책임지고 전 과정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지휘하고 프리랜서를 기용하자는 '자체제작'을 제안했다. 그리고 자체제작을 할 경우에는 3천만원가량의 비용이 절감되며 이 비용으로 비디오 앨범까지도 제작할 수 있다는 안을 내었다. 이에 대해 사준위는 자체제작이란 것은 사실상 작업 단계마다 하청을 따로 주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프리랜서를 기용할 때 생기는 외형부담은 결국 졸업생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사준위가 내정한 앨범기획업체인 '길' 스튜디오가 제작한 작년 졸업앨범의 경우는 질이 낮다는 졸업생들의 항의로 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준위는 앨범제작 업체 가운데 여럿을 두고 물색을 했으나 적정 인력과 장비, 그리고 성실성을 갖춘 업체를 고르다 보니 '길' 스튜디오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 앨범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편집·디자인 부분이라 판단하고 이 부분의 협력업체를 작년의 '나보기회'에서 다른 업체로 바꿀 것을 '길' 스튜디오에 요구하였다고 한다. 또한 작년 앨범의 사진이 전반적으로 어둡게 나왔던 것은 실내에서 찍은 탓이라 보고 올해는 졸업생들의 의견을 물어 야외촬영으로 변경하였다. 사준위는 개인 사진을 기존 2컷에서 3컷으로 늘려 학생들이 마음에 들게 나온사진으로 선택할 폭을 넓히는 등 전반적 작업 과정을 감사하므로써 앨범의 질을 보장한다고 한다.

도서관내 전면 금연

지난달 22일부터 중앙도서관 내에서의 완전금연이 실시되었다.(관련기사 8면)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금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응답자 중 비흡연자가 2배31명, 흡연자가 1백35명인 것으로 드러나고 흡연자 가운데 42%가 완전금연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도서관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던 흡연실은 철거된 상태다.

학사경고자 9백77명

우리학교의 94학년 1학기 성적경고대상자는 모두 9백77명(서울3백75명, 수원6백2명)으로 지난 학기 8백55명에 비해 1백22명 늘어났다.

또한 3회연속 성적경고로 제작된 학생수는 모두 15명으로 서울캠퍼스 3명, 수원캠퍼스 12명이며 지난학기 제작생 4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설문을 빙자한 월부판매 교내 침투

사회비스 정류장이나 역 앞에서나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빙자한 상업행위가 교내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방송을 사칭하는 '태성문화방송'.

(사진은 태성문화방송 직원이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는 모습)

계약제 적용 첫 신임교수 채용

양캠퍼스 교무과는 신임교원 임용명단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교원은 교수들의 안일한 연구태도에 자극을 주고 대학의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제정된 '신임교수 임용규정'에 맞춰 전원 3년간 계약제로 공개채용 되었다. 신임교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3년후 연구, 강의, 사회봉사 등 3개 부문에 걸쳐 심사를 받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조교수나 부교수로 임용키로 했다.

신임교원은 서울캠퍼스 6명, 수원캠퍼스 6명으로 모두 12명이며 명단 및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생년월일, 전공분야, 출신대학, 최종학력, 임용학과 순이다.)

[서울캠퍼스] ▲송창섭(54. 8. 9. 체이스피어, 경희대 영문과, 북일리노이대학 영문학박사, 문리대 영문) ▲박균성(57. 2. 22, 행정법, 서울대 법학과, 프랑스 Aix－Marseill Ⅲ 대학 법학박사, 법대 법학) ▲정기택(63. 1. 28, 보험학, 서울대 영문과, 펜실베니아대학 경영학박사, 정경대 무역) ▲김문철(59. 7. 19, 회계학, 서울대 경영학과, 일리노이대학 회계학박사, 정경대 회계) ▲박재훈(63. 6. 19, 병리학, 경희대 의학과, 경희대 의학박사, 의대 의학) ▲김동주(59. 8. 8, 작곡, 한양대 작곡과, 무사시노대학 음악학석사, 사회대 부역) ▲김종헌(59. 1. 29, 건축설계, 경희대 건축공학과, 밀라노공과대학 공학박사, 공대 건축) ▲이석근(56. 12. 1, 도로및 교통, 서울대 토목공학과, Texas A & M대학 공학박사, 공대 토목) ▲박승국(57. 12. 7, 식품화학 및 분석, 경희대 식품가공학과, 캘리포니아대학 공학박사, 산대 식품가공)

수원도서관 이번달 개관

외부벽면, 조경공사 90% 진행

수원캠퍼스 도서관이 오는 27일 개관할 예정이다.

업자측과 재계약을 맺고 지난 5월1일부터 재개된 도서관 공사는 8월 31일까지 완공하여 9월 27일 개관한다는 목표아래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외부벽면의 페인트 공사를 돌가루와 아크릴수지의 합성물인 스톤믹스 부착공사로 변경, 1층 열람실 천정 조각공사 추가, 도서관 3층으로의 행정부서 이전 등 24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90% 이상의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는 내부공사는 개관예정일에 맞춰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외부벽면 공사와 주위 조경공사 등은 끝낼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원차량 출입금지

지난 1일부터 경희의료원 직원 차량의 교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서울캠퍼스 총무과는 위의 사항을 공고하고 단속에 나섰다. 총무과는 지금까지 의료원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의료직원 차량의 출입을 허용, 2부제를 시행해 왔으나 이가 잘 이행되지 않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후기 학위수여식

93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30일 크라운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63명, 석사3백47명(최고경영자과정 67명, 언론연구자과정 4명), 학사2백46명이 배출되었다.

새 노조위원장에 김종원씨

우리학교 7대 노동조합 보궐선거 결과 위원장에 김종원(중앙도서관), 부위원장에 이석호(국제평화연구소), 사무국장에 이진우(자연시박물관)씨가 각각 당선되었다.

노조는 지난 6월 20일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사퇴함에 따라 두달 동안 임원궐석 상태로 있다가 이번달 2일 보궐선거를 치뤘다. 이번 선거는 단독 입후보하여 찬반투표로써 당락을 결정하였는데 총조합원수 1백75명 중 1백5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백46명의 찬성(반대 9명)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당선된 새 노조위원장 김종원씨는 "근래 몇년간 벌어졌던 조합원들의 사기를 회복시키고 학교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화합무색한 분리제작

▼개교 45주년을 맞이하여 학내 곳곳에서 우리는 '변화'와 '발전'이란 두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개교 45주년 기념 경희 한마당'이 펼쳐졌던 그날 우리들은 사회의 일선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모교를 바라보는 선배들의 눈동자를 목격했고 '모두가 하나'라는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화합의 한마당'이란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서울·수원 앨범 분리제작이란 참담한 현실을 접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서울의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수원 사회진출준비위원회(이하 사준위)의 업체('길' 스튜디오) 선정과정 및 관례상의 문제를 내세워 '학생 자체제작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 대안으로 학생들이 전공분야를 살려 앨범제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앨범을 제작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사준위는 졸준위의 자체제작안에 대하여 경험이 부족하고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했고 수의계약에 의한 '길'스튜디오의 내정에 대해서도 "전년도 앨범의 질적 문제를 고려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재내정하게 되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쌍방간 대립의 심화는 양캠퍼스간의 독립적 앨범제작이란 결과를 초래했다. 유례없는 앨범의 분리제작이란 현실 앞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그런 중대 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생각에 경악하고 있다.

▼앨범제작은 제작비가 1억원을 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다. 앨범을 분리 제작하게 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졸업을 앞둔 당사자, 즉 학생들인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 결국 피해를 가져다 준다면 그 결정은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모상용 記者〉

스쿨버스 분당 노선 개통

지난 1일부터 지하철 분당선 수서－오리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수원캠퍼스와 오리역간의 스쿨버스 노선이 신설되었다.

기존 강남노선의 차량 19대 중 5대가 투입 운행되고 있는 학교와 오리역간의 노선은 13㎞ 거리로 스쿨버스로는 약 20～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은 4백원이다. 또한 운행시간은 오전 8시(오리역출발)에서 오후 10시(학교출발)까지이다. 오리노선 이용 학생들중 수서역을 거쳐야 하는 학생은 수서역에서 하차하여 분당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재 강남노선은 고속도로 후불제 시행에 의한 통제이브 정체와 강남대로의 버스전용차선 확대에 따라 승차장 없는 각 대학 스쿨버스의 불법정차 단속 등으로 수송능력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의 분당선 전철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社告

전국 고교문예 현상공모

오는 11일 본관앞서

우리학교가 주최하고 본사와 국어국문학과가 후원하는 제30회 전국 고교문예 현상공모의 일정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공개백일장 :
1. 일시 9월11일(일) 오전10시
2. 장소 : 경희대학교 본관앞

▲최종심사 및 시상식 : 9월11일(행사당일)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

오는 13일 접수마감

진실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대학문화를 선도해 가는 대학주보가 현실과 역사를 가르며 날카로운 필봉을 드높일 대학의 지성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 서울·수원캠퍼스 ○○명
▲모집부문 : 취재편집부, 사진부, 컷(만화)
▲지원자격 : 우리학교 1학년생
▲선발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9월6일부터 9월13일까지나. 전형일시 및 장소
①서울캠퍼스:9월13일 오후6시 서울캠퍼스 편집실
②수원캠퍼스:9월14일 오후6시 수원캠퍼스 편집실
다. 전형방법 : 면접
▲제출서류 : 응시원서(당사소정양식)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사 편집실
▲문 의 : 961－0095(서울), 0331)280－2056(수원)

— 대학주보사 —

'94년도 예비군 보충교육 안내

1. 대 상: 서울캠퍼스에 소속된 교직원, 학생 중 92, 93, 94년도 시간미달 및 교육 미필자 전원
2. 장 소: 금곡교장(222연대 운동장)
3. 일 정: 9/16(금) : 8시간, 9/17(토) : 4시간
4. 이동방법:
－해당일 07시 정각 학교운동장(밝은사회 운동탑) 대여차량으로 출발
－지연시 청량리통테(구 밤모스)백화점앞에서 165－3번 버스이용(30분간격)
－자가용 이용시 부대정문밖 주차장 이용가능
5. 복 장: 예비군복(복장, 모자, 군번혁대, 군화, 고무링 등)불량시 결석처리함.
6. 지참물 및 유의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미지참시 불참처리함
－07 : 50분까지 부대정문 통과해야 출석인정함
－만일 불참시 금년도 교육은 없으며 사판에서 고발조치 대상됨
－연대본부 미편성자는 인정안함
－문의사항 : 961－0148, 0149
－도시락 지참
－신입, 복학생은 명단을 공고하지 않았음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1. 신고대상: 교직원, 대학원 및 학부생으로서 94년도 신입, 편입 복학생 등 학교 예비군에 미신고된 예비군 대원
2. 신고기간: 94.8.22(월)～94.9.10(토)까지
3. 지 참 물: 컬러 증명사진 1매, 도장
4. 내 용: 예비군 편성신고서 1매, 예비군 편성확인서 1매 작성후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개인별 거주지(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병사담당자에게 작성 즉시 제출할 것.
5. 장 소: 예비군 연대본부(본관1층) 전화:961－0148, 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연대본부로 연락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94 경희동문록 발간

10만 경희동문의 현주소와 색인수록

1984년 발간된 이래 10년만에 「慶熙同門錄」이 발간되었습니다. 「'94 慶熙門錄」에는 지구촌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동문 모두의 현주소를 수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번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동문님의 주소를 바로잡아 다음번에는 보다 완벽한 동문록을 편찬코저 계속 노력하고 있사오니 동문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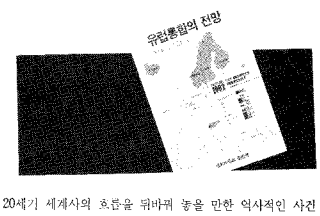
특별보급가 : 20,000원(제작실비), 4×6배판 2,000쪽/원색화보 및 본문과 색인/고급 미색 보안지/고급 포크로스 양장과 케이스 입

*필요하신 동문은 총동문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744－9321, 744－8855～6)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身册不二"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몸과 책은 둘이 아니다"
공부하는 선비와 책은 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음식물을 섭취해 살아가듯이
공부하는 이의 정신은 독서를 통해 살찌워집니다.
긴 여름방학동안 우리는 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개강과 독서의 계절을 맞아 책을 통해 자신을 키워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책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귀중한 시간들—
우리의 젊은 시절은 바로 이렇게 귀중한 시간들과 더불어 더욱 무르익어 갑니다.



20세기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인 유럽통합의 시대를 맞아 '한국유럽연구협회'에서 그간 학계에서 논의되어온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엮은 책.
제1부 '정치·사회', 제2부 '경제·통상·농업', 제3부 '안보'편으로 구성해 어느 한 영역에서는 적절하게 다루어지기 힘든 유럽통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한국유럽연구협회 엮음/경희대학교 출판국 발행/276면/7천원

경희대학교 출판국의 좋은 책들

□문화의 이해
박이도외 지음/250면/5000원
□哲學入門
남기영외 지음/260면/4800원
□생띡쥐레리 硏究
배기열 지음/213면/8000원
□인류사회의 再建
조영식 지음/304면/4000원
□科學的 硏究態度와 論文作成
남상필외 지음/266면/4500원
□大學의 理念
칼 야스퍼스 지음/민준기 옮김/183면/2천원
□自由－그 새로운 分析
크랜스턴 지음/황문수 옮김/194면/1700원
□社會 社會
E.H.카아 지음/이원우 옮김/135면/1700원
□民主主義의 基礎異論
이원우 지음/215면/2200원
□文學이란 무엇인가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
싸르트르 지음/배기열 옮김/198면/3500원
□現代西歐政治論
라종일 지음/242면/3000원
□外交方式의 變遷
H.니콜슨 지음/이원우 옮김/140면/1700원
□나는 平和입니다
D.에라스무스 지음/연정숙 옮김/162면/1500원
□韓·美關係 40년(1948～1988)
곽태환의 지음/329면/7000원
□상황인식과 우상파괴
대학주보사 엮음/293면/3000원

※서적구입은 경희서적센터를 이용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출판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KHUP 慶熙大學校出版局 전화 : 961－0106～7 FAX : 962－8840